



numbers

vol. 321

한국교회 헌금 실태와 인식 한국교회, 헌금이 줄고 있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초·중·고 학생 수와 사교육비 변화 추이
- ② 한국 등 5개국 결혼·출산·육아 관련 인식 비교

2026. 1. 27.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 헌금이 줄고 있다!

한국교회의 재정적 근간인 헌금이 단순한 양적 감소를 넘어 '구조·인식의 변화'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번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의 '한국교회 헌금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목회자와 성도 모두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헌금 수준이 '줄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교회 규모에 따른 '재정 양극화'이다. 500명 이상 중대형교회는 헌금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절반(48%)에 달한 반면, 29명 이하 소형교회는 감소했다는 응답(44%)이 훨씬 높아 교계 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넘버즈 321호>에서는 헌금 데이터를 통해 드러난 성도들의 가치관 변화를 짚어보고, 재정 감소 시대에 접어든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건강한 재정 관리와 사역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헌금 실태와 인식 조사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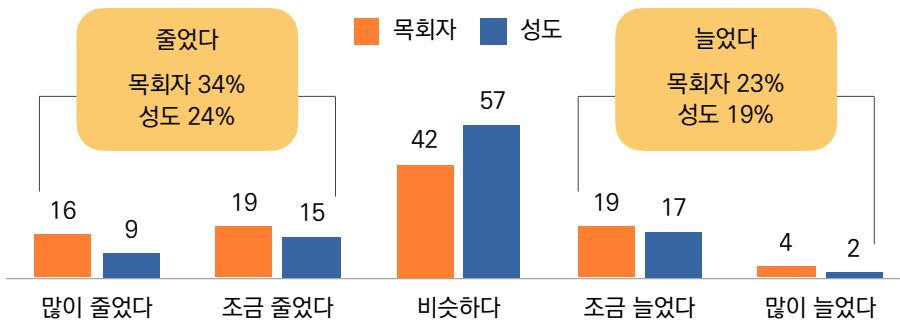
구분	성도 조사	목회자 조사
조사 대상	만19세 이상 개신교인(교회출석자)	한국교회 담임목사
표본 규모	총 1,000명(유효표본)	총 500명(유효표본)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이메일을 통한 URL발송)	온라인 조사 (이메일 및 카톡을 통해 URL발송)
표본 추출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비례할당	편의추출(Convenience Sampling)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목회자 조사는 교회 규모를 고려한 가중치 부여)	
조사 기간	2025년 5월 15일 ~ 2025년 5월 22일 (총 8일간)	2025년 6월 2일 ~ 2025년 6월 10일 (총 9일간)
조사 주체	목회데이터연구소 / 희망친구 기아대책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01

[헌금 변화 추이와 원인] 한국교회, 헌금이 줄고 있다!

- 한국교회 구성원(목회자, 성도)이 체감하는 헌금 수준은 증가보다는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자 대상으로 코로나 이전과 비교한 현재 헌금 수준을 묻은 결과, '줄었다'는 응답이 34%로 '늘었다'는 응답(23%)보다 11%p 높게 나타났다.
- 성도들의 경우도 비슷했다. 최근 3년간 헌금 수준 변화에 대해 비슷하다는 응답을 제외한 증감 비율만을 살펴보면, '줄었다' 24%, '늘었다' 19%로, 목회자와 마찬가지로 '줄었다'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코로나 이전 대비(최근 3년간)* 헌금 수준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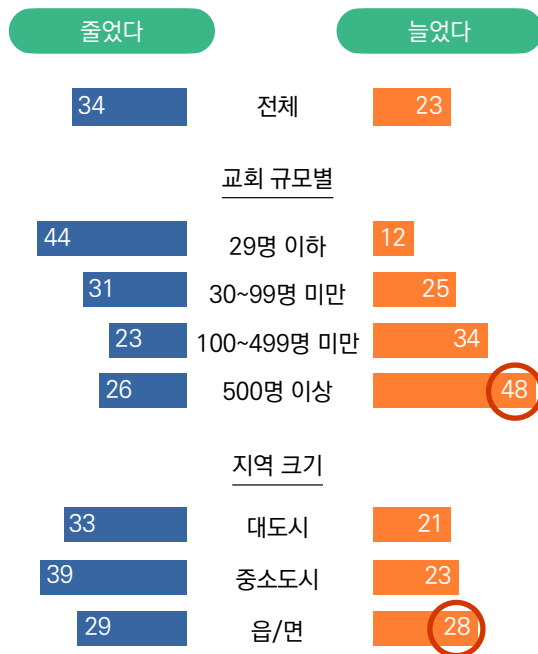
*목회자 질문 : 코로나19 이전 대비 목사님 교회의 헌금 수준은 어떻습니까?

성도 질문 : 지난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귀하(배우자 포함)의 헌금 수준은 어떻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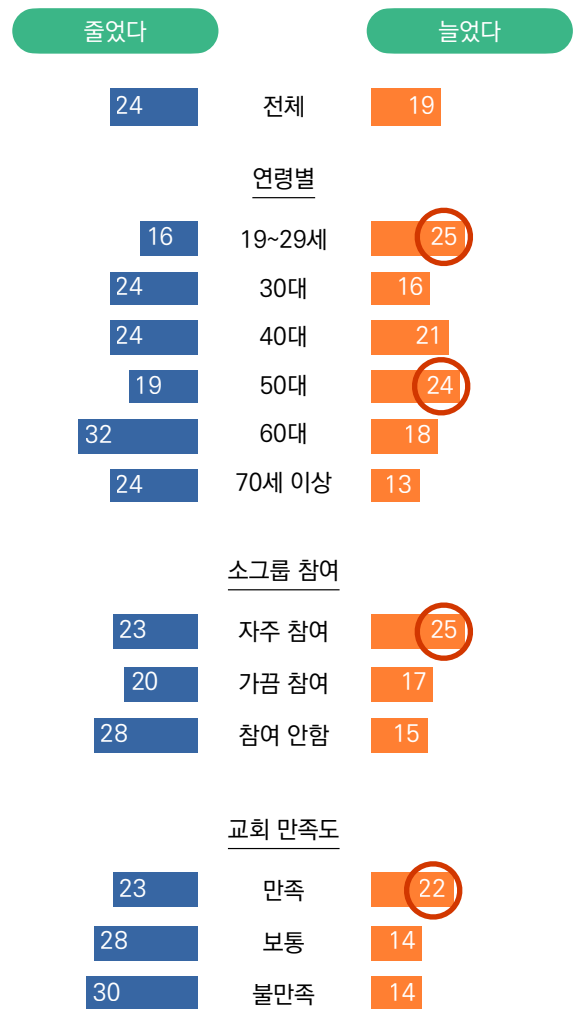
헌금이 증가하는 그룹 : 500명 이상 중대형 교회, 소그룹 참여도 높은 자!

- 한국교회의 헌금 변화가 교회 규모와 지역, 성도의 소그룹 활동 수준 등에 따라 뚜렷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 목회자 조사 결과, 500명 이상인 중대형교회는 '늘었다'는 응답이 48%에 달했으나, 29명 이하 소형교회는 '줄었다'는 응답이 44%로 나타나 큰 대조를 이뤘다.
- 성도의 경우 20대(25%), 50대(24%)와 소그룹 참여도가 높을수록(25%), 교회 만족도가 높을수록 '헌금 증가'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반대로 헌금이 '줄었다' 응답은 60대(32%), 소그룹 미참여자(2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헌금 변화 (목회자, %)



[그림] 최근 3년 대비 헌금 변화 (성도, %)



100명 미만 교회, '중상위 이상' 교인 비율 상대적으로 낮다!

- 성도들의 경제 수준과 교회 규모를 비교해 보면, 교인 수 100명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이 확연하게 갈리는 것이 눈에 띈다.
- 100명 미만 교회는 '중상위 이상' 성도 비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데 반해 100명 이상부터는 13~15%로 2배 이상 높았는데, 이는 100명 이하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수밖에 없는 상황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정 양극화 심화 요인 중 하나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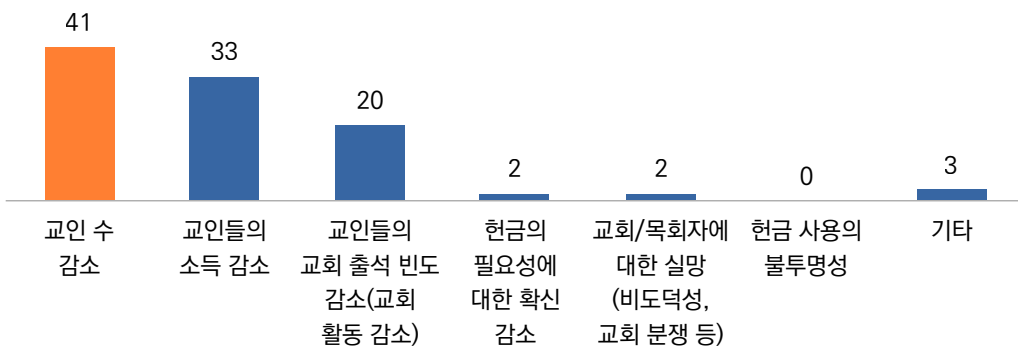
[표] 교회 규모별 경제 수준 (성도)

구분		중하+하	중	중상+상
전체		41%	47%	12%
교회 규모별	50명 미만	57%	38%	5%
	50~99명	50%	43%	7%
	100~299명	32%	54%	15%
	300~999명	38%	47%	15%
	1000명 이상	40%	47%	13%

목회자, 헌금 감소 이유, '교인 수 감소/소득 감소' 등 구조적 요인 때문!

- 헌금 감소 이유로 목회자들은 '교인 수 감소'(41%)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교인들의 소득 감소'(33%), '교인들의 교회 출석 빈도 감소(교회 활동 감소)'(20%)가 뒤를 이었다.
- 반면, '헌금 사용의 불투명성'(0%), '교회 목회자에 대한 실망'(2%) 등 제도·신뢰적 요인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헌금 감소 원인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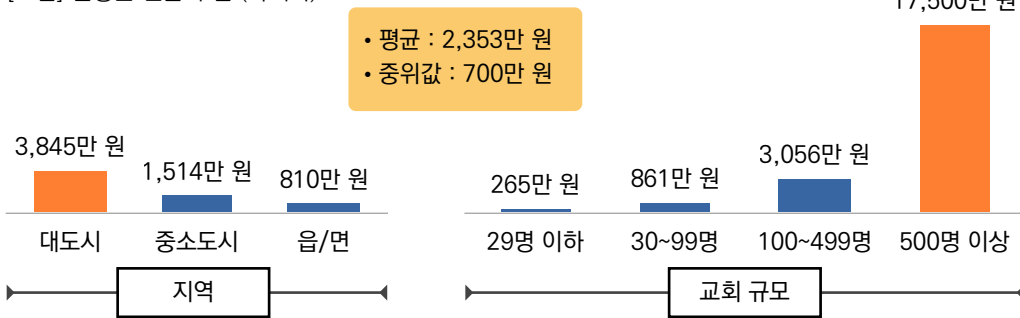
02

[헌금 실태 및 인식]

한국교회 월 평균 헌금 2353만 원, 중위값 700만 원!

- 교회의 월 평균 헌금 수입을 살펴보면, 평균 2,353만 원, 중위값은 700만 원으로 집계 됐는데, 이는 소수 대형교회의 자원 집중이 평균 값을 끌어올려 중위값과 큰 편차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과 교회규모에 따른 재정 쓸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 대도시 교회의 월 평균 헌금 수입은 3,845만 원인 반면, 읍/면 지역은 810만 원에 그쳐 지역 간 4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 더욱 극명한 차이는 교회 규모에서 나타난다. 500명 이상 중대형교회의 월 평균 헌금은 1억 7,500만 원에 달하지만, 29명 이하 소형교회는 265만 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는 단순한 수치 비교를 넘어, 교회의 인적·물적 자원이 특정 규모 이상의 교회에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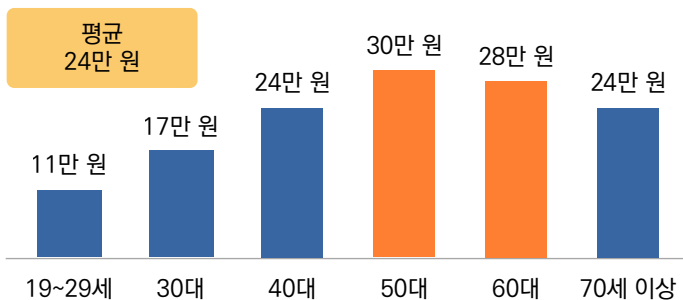
[그림] 월평균 헌금 수입 (목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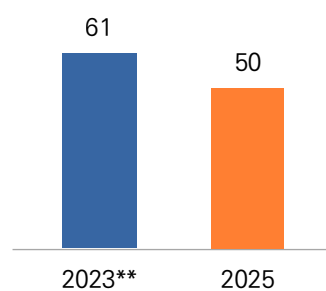
성도 월 평균 헌금 24만 원...50대가 가장 많이 낸다!

- 성도가 드리는 월 평균 헌금액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월 평균 헌금액은 24만 원이었다. 50대가 30만 원, 60대가 28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19~29세의 평균 헌금액이 11만 원으로 가장 저조했다. 50~60대가 교회 재정의 실질적인 허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 70대의 경우, 개인사업자를 제외하고 연금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텐데, 이들 그룹이 내는 헌금(24만 원)과 40대 헌금(24만 원)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만큼 40대 이하층이 헌금을 상대적으로 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 한편, 십일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성도의 비율은 50%로 성도 2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조사 결과(61%)와 비교해 불과 2년 사이 11%p나 하락한 수치다.

[그림] 연령별 월 평균 헌금액 (성도)



[그림] 십일조 헌금 '정기적으로 드린다' 비율* (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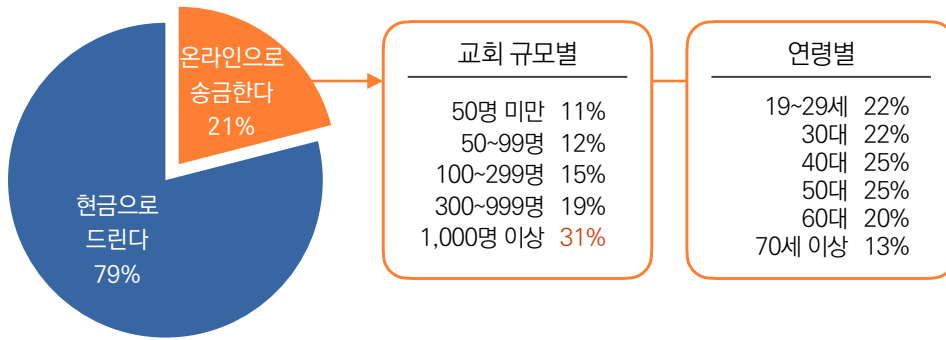
*3점 척도(정기적, 비정기적, 드리지 않음)

**2023년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23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2023.05.(전국의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3.01.09.~01.16.)

성도 5명 중 1명, 온라인 헌금 드린다!

- 헌금하는 성도를 대상으로 헌금을 방식을 묻은 결과, ‘헌금으로 드린다’ 79%, ‘온라인으로 드린다’ 21%로 나타났다. 5명 중 1명꼴로 온라인 헌금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 교회 규모별로 보면 대형교회일수록 온라인 헌금 비율이 뚜렷하게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층을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20% 안팎의 고른 비율을 보였다.

[그림] 헌금 드리는 방식 (헌금하는 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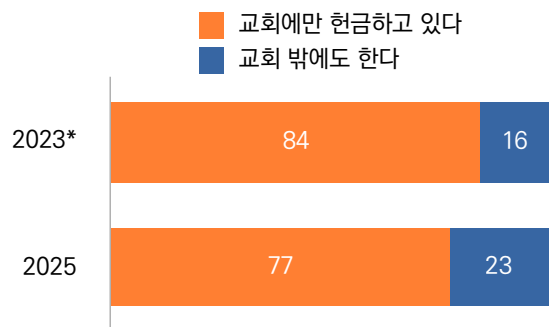
성도 44%, ‘헌금은 교회 이외 단체에도 무방하다’!

- 헌금을 드리는 곳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을 묻은 결과, ‘헌금은 교회에 해야 한다’ 52%, ‘선한 일에 사용한다면 교회 밖 단체에 해도 무방하다’ 44%로, 성도 절반 가까이가 교회 이외 단체 헌금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 특히, 20대에서는 절반 이상인 54%가 ‘교회 밖 헌금’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 실제 헌금을 드리는 곳을 살펴본 결과, ‘교회에만 헌금하고 있다’가 77%로 헌금하는 성도 대부분은 여전히 교회에만 헌금을 드리고 있었다. 다만 이 비율은 2023년 84%에서 7%p 감소하며, 헌금처가 교회 밖으로 점차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표] 헌금 드리는 곳에 대한 인식 (성도)

구분	헌금은 교회에 해야 한다	선한 일에 사용한다면 교회 밖 단체에 해도 무방하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52%	44%	4%	100%	
연령	19~29세	37%	54%	10%	100%
	30대	48%	47%	6%	100%
	40대	53%	41%	6%	100%
	50대	48%	51%	1%	100%
	60대	58%	40%	3%	100%
	70대	58%	38%	4%	100%

[그림] 실제 헌금 드리는 곳 (헌금하는 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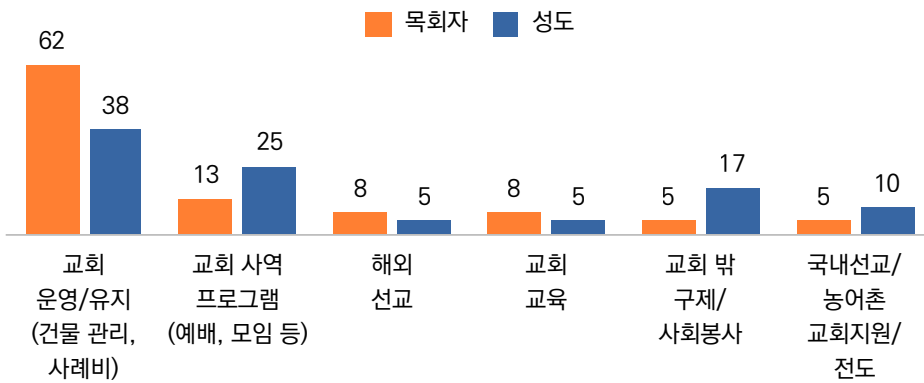
*2023년 출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23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2023.05.(전국의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3.01.09.~01.16.)

03

[교회 재정 사용에 대한 인식] 교회재정 집행, 목회자는 교회 '운영유지' vs 성도는 '사역' 우선

- 교회 재정 집행 시 가장 우선되어야 할 항목으로 목회자 62%, 성도 38%가 모두 '교회 운영·유지'를 선택해, 재정 집행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목회자는 성도보다 '교회 운영 유지'의 중요성을 훨씬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성도는 '교회 사역 프로그램', '사회봉사', '국내·해외 선교' 등 운영 외 사역에 재정을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전반적으로 목회자는 교회 유지 중심, 성도는 사역 확장 중심의 재정 집행을 기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처럼 목회자와 성도 간 재정 집행에 대한 인식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바, 두 그룹 간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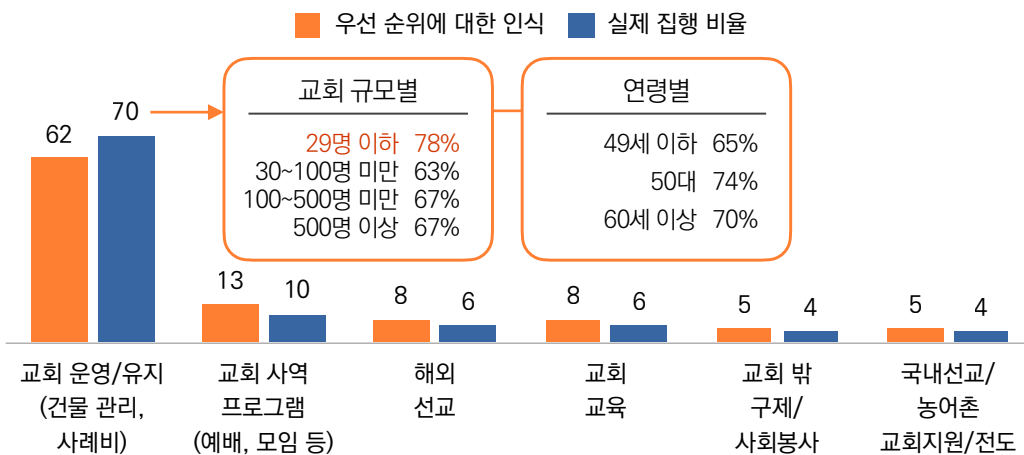
[그림] 재정 집행 시 가장 우선되어야 할 항목 (%)



실제 재정 사용, '교회 운영비'가 70% 차지!

- 교회 재정이 어디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실제 우선적 집행 항목을 비교한 결과, 교회 운영·유지는 실제 집행 비율이 70%로, 우선순위 인식(62%)보다 8%p 높게 나타났다. 이는 모든 항목 가운데 인식보다 실제 집행 비중이 더 높은 유일한 항목이다.
- 교회 운영·유지 집행 비율은 특히 교인 29명 이하 소형교회(78%)와 50대 목회자 그룹(7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재정 집행 우선 순위 인식과 실제 집행 비율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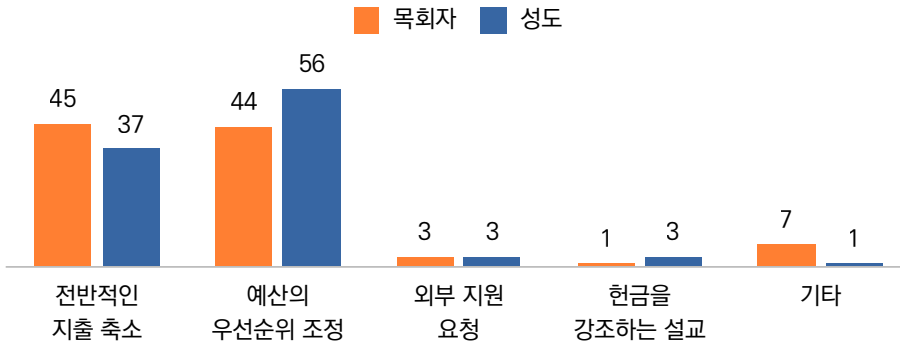
04

[헌금 감소 대응 전략]

헌금 감소 대응책, 목회자는 '지출 축소', 성도는 '예산 조정' 우선

- 헌금 감소에 따른 교회의 대응책을 묻은 결과, 목회자는 '전반적인 지출 축소'(45%)와 '예산의 우선 순위 조정'(44%)을 비슷한 수준으로 꼽았다.
- 반면, 성도는 '예산의 우선 순위 조정'(56%)을 '지출 축소'(37%)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두 그룹 간 인식차이가 존재해 서로간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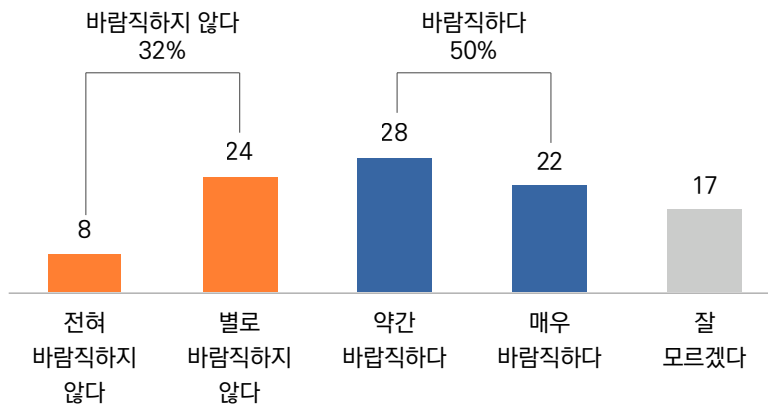
[그림] 헌금 감소에 따른 교회의 대응책 (%)



목회자 절반, '고령교인의 유산 기부 운동' 바람직!

- 헌금 감소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고령교인의 유산기부 운동에 대해 묻은 결과, 목회자의 절반(50%)이 '바람직하다'(약간+매우)고 응답했다.
- 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도 32%로 적지 않았다.
- 전반적으로 유산기부 운동에 대해 긍정 인식이 우세하지만, 신중론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고령교인의 유산기부 운동에 대한 인식 (목회자, %)



이번호 요약

1. 한국교회, 헌금이 줄고 있다

- 목회자 대상으로 코로나 이전과 비교한 현재 헌금 수준을 묻은 결과, '줄었다'는 응답이 34%로 '늘었다'는 응답(23%)보다 11%p 높게 나타났다. 성도들의 경우도 '줄었다' 24%, '늘었다' 19%로, 목회자와 마찬가지로 '줄었다'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2. 한국교회 월 평균 헌금 2,353만 원, 중위값 700만 원!

- 교회의 월 평균 헌금 수입을 살펴보면, 평균 2,353만 원, 중위값은 700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과 교회규모에 따른 재정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3. 성도 44%, '헌금은 교회 이외 단체에 내도 무방하다!'

- 헌금을 드리는 곳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을 묻은 결과, '헌금은 교회에 해야 한다' 52%, '선한 일에 사용한다면 교회 밖 단체에 해도 무방하다' 44%로, 성도 절반 가까이가 교회 이외 단체 헌금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성도의 헌금생활 (황원하 저, 생명의 양식)

관련 성경 구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목회 적용점

헌금 감소는 교회의 재정 문제를 넘어,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신앙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번 조사는 헌금이 줄고 있다는 사실보다, 헌금을 둘러싼 인식과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재정의 양극화이다. 월 평균 헌금(2,353만 원)이 중위값(700만 원)의 세 배를 넘는다는 사실은 소수 대형교회로의 자원 집중과 소형·미자립교회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는 소규모 교회들이 겪는 실제적인 고통이 훨씬 심각함을 드러내며, 교회 간 연대와 지원 체계 마련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성도들의 가치관 변화도 뚜렷하다. 성도의 44%가 '교회 밖 헌금'에 열려 있다는 사실은 헌금이 제도적 의무를 넘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가'를 따지는 가치 판단의 영역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교회가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헌금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기부 영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목회 현장에 다음의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교회 재정의 투명성과 사역 성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헌금이 성도와 교회 사이의 '신뢰의 언어'가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재정 집행시 우선 항목에서 성도와 목회자의 인식이 크게 다른데 이 간격을 줄이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서로 간의 재정 지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둘째, 교회 비전 중심으로 우선 순위 사역을 정하는 등 사역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한국교회 트렌드 2026 심플처치 참조). 이를 통해 재정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셋째, 헌금에 대한 본질적 재교육이 시급하다. 헌금을 교회의 '유지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능적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송고한 '신앙 행위'로 고백하게 함으로써 헌금 감소의 시대를 신앙 회복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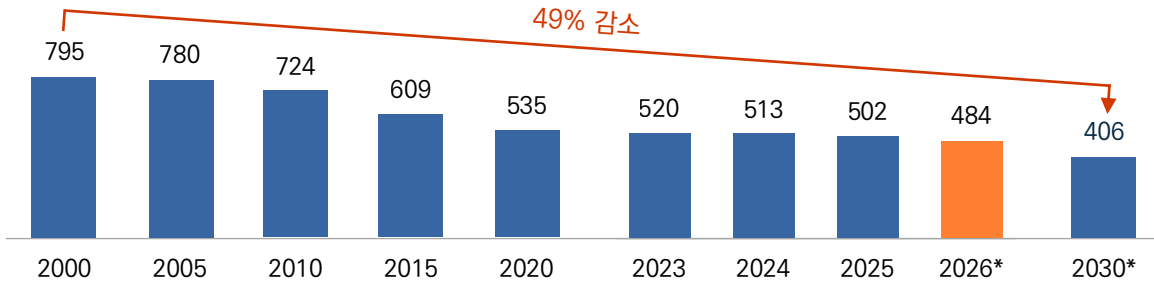
1. 초·중·고 학생 수와 사교육비
변화 추이
2. 한국 등 5개국 결혼·출산·육아
관련 인식 비교



[초·중·고 학생 수와 사교육비 변화 추이] 초중고 학생 수, 2000~2030년 사이 반토막 예상!

- 우리나라의 미래와 직결되는 다음세대, 초중고 학생들의 규모 변화를 교육통계 자료와 2025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를 통해 살펴본다.
-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2000년 795만 명, 2010년 724만 명, 2015년 609만 명, 2020년 535만 명에서 2025년 502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6년엔 500만 명 선 붕괴가 예상되고, 지금으로부터 4년 후인 2030년에는 400만 명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초중고 학생 수 변화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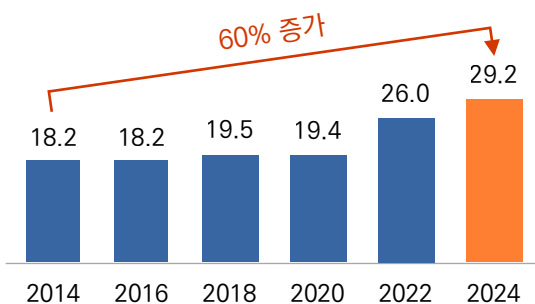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유·초·중등 교육통계-학년별 학급 수 및 학생 수), 각 연도별
*2026년 이후 출처 : 교육부, 2025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2026~2031년), 2026.0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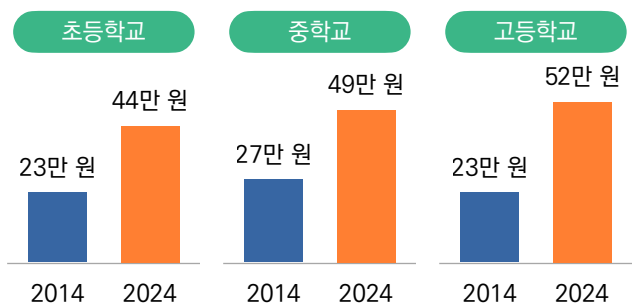
초·중·고 사교육비, 10년 새 60% 증가!

-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최근 10년간 사교육비 총액은 2024년 29.2조 원으로 2014년 18.2조 원 대비 60%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학교급별 1인당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 원, 중학생 49만 원, 고등학생 52만 원으로 2014년과 비교해 1.8~2.2배 증가했으며, 특히 고등학생 사교육비 부담률이 가장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변화 (조 원)



[그림]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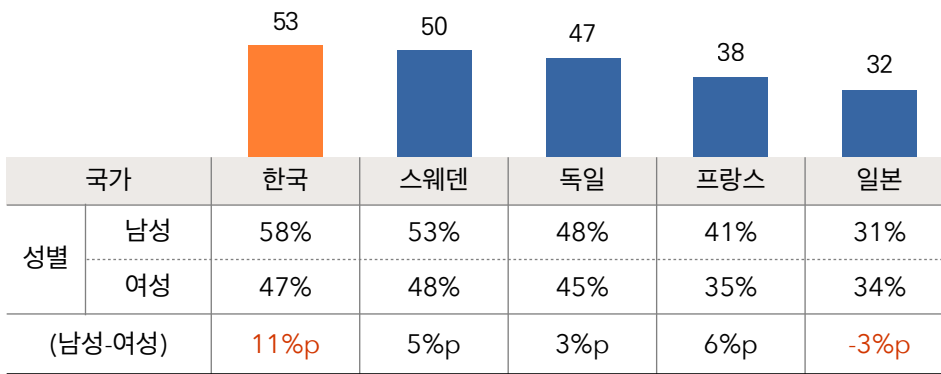
※출처 :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보도자료,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2025.03.13. (2014년 조사는 해당연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참조)



[한국 등 5개국 결혼·출산·육아 관련 인식 비교] 한국, 결혼 의향 5개국 중 1위...남녀 간 의향 차도 가장 커

- 한국과 해외 4개국 2040세대 국민(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을 대상으로 한 결혼·출산·육아 관련 인식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돼 해당 자료를 살펴본다.
- 먼저 현재 미혼자들의 결혼 의향을 살펴본 결과, 한국이 5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스웨덴(50%), 독일(47%), 프랑스(38%), 일본(32%) 순이었다.
- 주목할 점은 남녀간 결혼 의향 차이이다. 특히 한국은 남성 58%, 여성 47%로, 남성이 11%p 더 높았는데, 10%p 이상 차이가 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 또, 5개국 중 일본만 '여성'(34%)이 '남성'(31%)보다 결혼 의향이 더 높았다.

[그림] 미혼자의 결혼 의향 (한국 등 5개국 20~40대 국민 대상, '결혼할 생각이 있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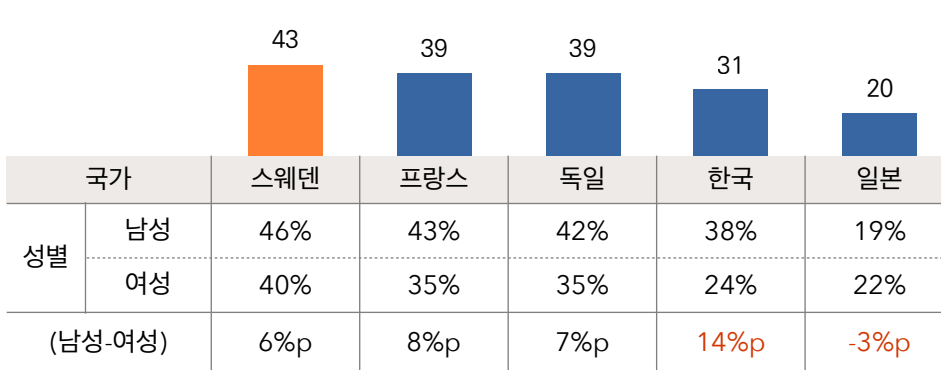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외 인구정책 사례 연구' 보고서 (최경덕 부연구위원), 2025.12.

*4점 척도(결혼할 생각이 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 생각해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모르겠다))

한국 2040세대 출산 의향 31%, 남녀 격차(14%p) 두드러져!

- 이번에는 5개국 국민들의 향후 출산 의향을 살펴본다. 향후 자녀를 낳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스웨덴(43%), 프랑스(39%), 독일(39%)이 상대적으로 높고, 다음으로 한국(31%), 일본(20%) 순이었다.
- 앞서 '미혼자의 결혼 의향'과 유사하게 일본을 제외한 4개국에서 남성의 출산 의향이 여성에 비해 높았으며, 특히 한국에서 남성과 여성의 출산 의향 차이(14%p)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림] 향후 출산 의향 (한국 등 5개국 20~40대 국민 대상, '자녀를 낳을 생각이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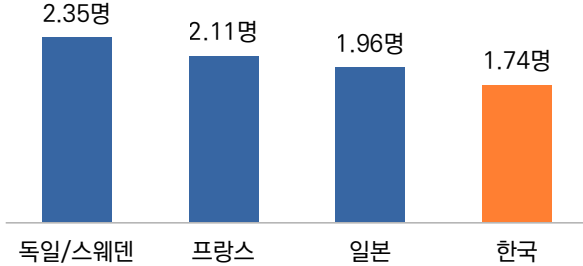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외 인구정책 사례 연구' 보고서 (최경덕 부연구위원), 2025.12.

*4점 척도(낳을 생각이다, 낳지 않을 생각이다, 생각해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모르겠다))

5개국 중 한국, 평균 계획 자녀 수(1.74명) 가장 적어!

- 출산 의향이 있는 자들에게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를 물은 결과, 평균 계획 자녀 수는 한국이 1.74명으로 가장 적었다. 독일과 스웨덴이 2.35명으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2.11명), 일본(1.96명)이 뒤를 이었다.

[그림] 계획하는 자녀 수 (한국 등 5개국 20~40대 국민 대상,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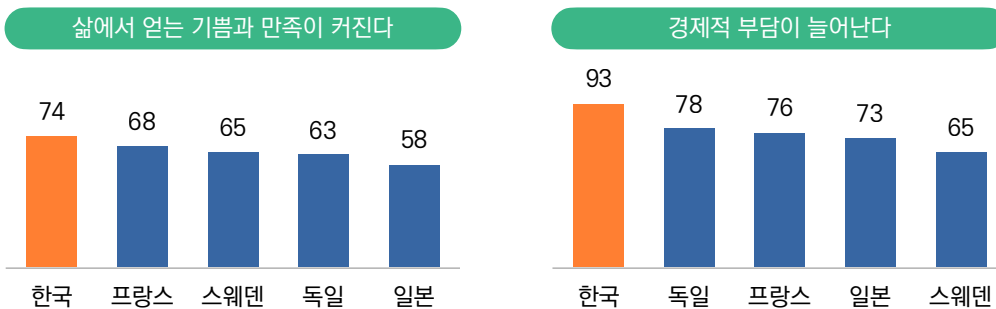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외 인구정책 사례 연구' 보고서 (최경덕 부연구위원), 2025.12.

한국민, 자녀 출산으로 얻는 기쁨도 크겠지만(74%), 경제적 부담도 늘 것(93%)!

- 자녀 출산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물은 결과, 긍정적 영향으로는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에 5개국 모두 절반 이상 동의했으며, 그중 한국이 74%로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 부정적 영향 중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에 대한 동의율 역시 한국이 93%에 달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독일 78%, 프랑스 76%, 일본 73%, 스웨덴 65% 순이었다.
- '자녀 출산으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질 것'과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 모두 한국이 5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난 점에 대해 연구팀은 경제적 부담이 한국의 낮은 합계 출산율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 즉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면, 향후 출산율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자녀 출산이 삶에 미치는 긍·부정적 영향 (한국 등 5개국 20~40대 국민 대상, '전적으로+약간 동의한다' 비율*, %)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외 인구정책 사례 연구' 보고서 (최경덕 부연구위원), 2025.12.

*5점 척도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49호 \(2026년 1월 4주\)](#)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 경제 전망, 주식 시장 관련 인식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73호 \(2026년 1월 4주\)](#)

- 국정운영 평가, 부동산 정책 평가, 한중 관계 설정 기초, 지방선거 성격

사회 일반

[1인 가구, 만성질환 3배... 집·직장 외 '제 3의 공간' 꼭 필요](#)

조선일보_2026.1.24.

[비수도권 시·군 10곳 중 8곳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심각"](#)

국민일보_2026.1.20.

[설 차례상 비용 전통시장서 29만6천원...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

연합뉴스_2026.1.25.

[서·연·고 신입생 3명 중 1명은 서울 출신...서울대는 36%](#)

연합뉴스_2026.1.23.

[운동 기구마다 점자... "인생 첫 천국의 계단 타봤어요"](#)

서울경제_2026.1.20.

[\[2025 인간관계인식조사\] 인간관계 형성 방식과 변화 : 선호하는 관계 형성 방식과 노력, 실제 관계망 변화](#)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6.1.20.

아동 · 청소년 · 청년

[청년층 구직 기간, 1년 늘면 실질임금 6.7% ↓ ...생애 전반에 '마이너스'](#)

한겨레_2026.1.19.

[더 더딘 취업, 늘어난 주거비... 청년 삶이 팍팍하다](#)

국민일보_2026.1.20.

[빠르게 복상한 '취업남방한계선'... 청년층 '쉬었음' 악순환](#)

국민일보_2026.1.21.

노인

['망하면 재기 불가' 파산신청 절반이 어르신](#)

중앙일보_2026.1.26.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경제 · 기업

['반짝추경'에도 자영업 5년만에 최대폭 감소...2030부터 때렸다](#)

연합뉴스_2026.1.25.

[아파트 시장 '초양극화' 현실화...전국 상하위 20% 가격 격차 14.5배](#)

매일경제_2026.1.26.

국제 · 환경

[베네수엘라 지렛대 삼는 트럼프에 OPEC 통제력 약해질 듯](#)

중앙일보_2026.1.21.

[중국서 뜨는 新직업 'AI 트레이너' ... "수요 30% 급증"](#)

매일경제_2026.1.26.

건강

[전립샘암, 폐암 제치고 첫 남성암 1위... 국민 5%는 암 유병자](#)

국민일보_2026.1.21.

[내 건강에 가장 큰 영향 끼친 건 '돈'...월 13만9천원 투자](#)

연합뉴스_2026.1.25.

기독교 · 종교

[마음 살피기 인색... "교회, 서로 돌봄 환경 조성해야"](#)

국민일보_2026.1.22.

[세계 1위 성경 구절은 시편 23편 4절...한국은 빌립보서 4장 6절](#)

서울신문_2026.1.24.

["기독교 탄압은 반문명적"... 북한, 24년째 최악 박해국](#)

기독교일보_2026.1.16.

트렌드

["비닐만 안 뜯으면 반값인데 굳이"...젊은 세대일수록 '중고 거래' 올인](#)

매일경제_2026.1.26.

오피니언

[\[강양구의 블랙박스\] 고통도 수모도 없는 작별, '의료 조력 사망'을 아십니까](#)

조선일보_2026.1.26.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교회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퓨처처치연구소(FCI),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 명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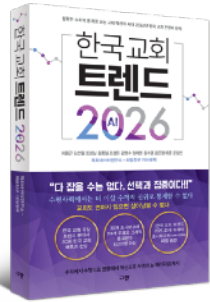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신규 후원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천안서부교회 (담임목사 윤마태), 대영교회 (담임목사 조운), 광천교회 (담임목사 이양수), 안산광림교회 (담임목사 민경보), 조의환 대구황금교회 (담임목사 김일수), 대양제일교회 (담임목사 장현석), 신성복교회 (담임목사 이광욱), 충성교회 (담임목사 한지훈), 오병수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하나), 대민교회 (담임목사 김준태), 부평감리교회 (담임목사 손웅석), 제주성안교회 (담임목사 류정길), 양희성

목회데이터연구소 출간 도서

※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명민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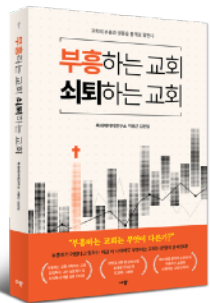


「한국교회 트렌드 2026」 (희망친구 기아대책 공동 출간)

2026년도 예상되는 한국교회 이슈와 트렌드 10가지를 주제로 선정하였는데, 이 책이 목회 전략을 수립하는데 올바른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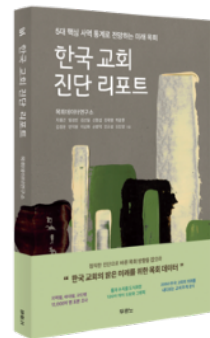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 성도를 총 1,320명 조사하여 각각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 5대 영역별로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Upward

건강한 교회의 맥박
예배

Forward

변화된 삶을 위한 양식
교육

Inward

그리스도의 몸
친교

Outward

예수의 섬김
봉사

Onward

지속되어야 할 대위임령
선교

책 구입 안내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